

한국농수산대학 2011 농어촌사랑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김성진
한국농수산대학 15대 총학
생회 총학생회장
채소학과 3학년

한국오리협회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 15대 총학생회 회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 여름 방학 동안 ‘농어촌 사랑, 함께 가는 국토대장정’을 기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8월 1일을 시작으로 보름간 땅끝 해남에서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다양한 취지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인내력과 단체의 소속감을 키워주는 것. 학생회에서는 후배양성과 결속력을 다지고 교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농업의 현실을 알고 학교를 알리는데 앞장 서는 것이었습니다.

대장정을 끝낸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초기에 잡았던 취지를 일정부분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것과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아서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지만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30여명의 학우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고 적극성을 보여주어 기대이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름 간 걸으며 동고동락을 함께 하고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농업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농업에 뛰어 들기 보단 좀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선배들

의 충고였습니다. 한 마디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또한 막연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강연을 통해 공부도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좀 더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름 간 걷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란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근육통이나 물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군 시절 행군을 많이 해서 걷는 건 자신 있던 저조차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조금 의아한 점도 있었는데, 걷는 게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짜증내고 싸우는 일보다 별 것 아닌 것에도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욱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이 힘들다 보니 조원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싸우는 사고가 날까봐 예민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이 들 때 더욱 그런 의식이 견고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성에서 정읍을 지날 때 산을 하나 넘어야 했고 가장 어렵고 위험한 코스였는데 1학년 후배인 친구가 주위분들에게 했던 말이 앞서 말한 얘기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라는 한마디였습니다. 후배가 저런 말을 하니 선배들까지도 오히려 자극이 되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걸으니 금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일부러 수박으로 갈증을 해소하여 그런지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느낄 수 있었구요.

위처럼 좋은 부분 못지 않게 기획 도중 어려운 부분이 숙소문제와 재정적어려움, 안전문제였습니다. 숙소는 3차례에 걸쳐 답사를 다녀온 덕에 다 확보할 수 있었고, 재정적 어려움은 학교와 동문회, 각 협회의 도움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협회 중엔 오리협회의 후원이 가장 컸습니다. 다니는 내내 차량에 협회에서 준 플래카드를 걸고, 경기도(용인, 성남)에 진입해서는 이틀 정도 유인물도 돌리며 가장 큰 도움을 준 오리협회홍보를 우리학교홍보보다 더 신경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 지나가는 분들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이렇듯 보름간의 일정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안겨다 주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돈 주고 왜 몸을 혹사시키느냐?”고 되물어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후회하는 친구는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없이 더 걷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발에 ‘걸레’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붓거나 물집으로 고생하면서도 걸으려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학창시절인 지금이 학생이란 신분의 핑계를 삼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공부하고 알바도 하고 놀러도 다녔을 테지만, 전 우

리 학교학생회가 하는 사업 중 대장정만큼 의미가 있고 값진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축제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많지만 말입니다. 차후 학생회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더운 여름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학우들에게 너무 고맙고, 기관 중 가장 많은 도움 주신 오리협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지원한 오리협회 홍보 깃발과 현수막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확인 전단지들을 시민에게 배포, 홍보하고있는 국토대장정단